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 一個月 壹圓 ... 廣告料 ...
發行所 朝鮮日報社 京城水標町四三
編輯兼發行人 ... 印刷人 ...

論說

朝鮮人은 主人이다
日本人本位는 不可

一

「天厭夷德, 胡無百年」을 부르짓고 「入主中國」한 蒙古族을 放逐하든 明朝의 開朝 朱元璋派의 大義名分을 내세우자 함은 아니다 閉鎖한 域外思想을 오늘날外지 품고 잇는 者를 想像할 수 업는 바이며 偏狹한 人種的 利己心으로써 排外心을 固執코저 하는 者도 업을 것이다 다만 二千萬 大衆의 攖息하는 그들의 鄕土 朝鮮에 잇서서 朝鮮人本位의 百般施設을 主張하는 것은 가장 合理한 要求이다 朝鮮人은 當然히 朝鮮의 主人이어야 할 것인 外닭이다 그러나 朝鮮人이 항상 生活圈外에 除外되고 오즉 日本人本位로 運行되는 것이 朝鮮現下의 政治的 現狀인 故로 이것이 問題되지 아니 할 수 업고 일부러 問題삼지 안는다 하더라도 여긔에 저절로 天下의 禍機가 감추여 잇게 되는 것이다

二

統治의 首腦部로부터 一般金融經濟의 樞機外지를 勿論하고 一般商業의 機關으로부터 百般의 社會的 機能이 日本人本位로 또는 日本中心으로 자못 鐵甕城과 가튼 組織의 힘으로써 하는 것은 이저 吸吸함이 들이어 痴鈍함을 外닷게 하는 바어니와 近者 敎育機關의 運用에 잇서서도 또한 더욱 日本人本位의 方針을 爲謂하는 것은 매우 不當한 者로써 朝鮮人의 매양 愛如치 못할 바이다 京城大學과 및 各種官立專門學校의 在學生을 日本人을 本位로써 함은 姑舍하고 그의 卒業者의 收用에 잇서서도 自然 日本人을 本位로 할 것이니 朝鮮人의 그것은 落後되고 또 除外됨을 免치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는 이미 論評을 거듭한 바이라 이제 煩瑣하게 말할 必要가 업다

三

向者 中等學校의 修身 歷史 地理 및 其他 重要敎員은 日本人으로 充用하도록 制限하려는 指令이 잇슴에 이미 그를 論評한 바 잇섯다 그리고 普通敎育에 잇서서는 그 用語와 및 敎材等을 朝鮮人本位로 變更할 必要에 關하여서도 吾人은 이미 累次 主張한 바잇섯거니와 이제 普通學校 敎員은 全部 朝鮮人으로 採用할 것을 主張한 者 잇서 적지 안케 識者의 注目을 끌는 바잇다 이러한 것은 勿論 枝葉의 問題로서 根本的 解決을 오게 하는 바 아니어니와 大體로서 朝鮮人 大衆의 白熱的 人性能을 無視하고 日本人本位의 또는 所謂 同化政策本位의 不自然한 또 不合理한 施設로써 하는 것은 매우 不當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朝鮮人의 民族的 生長을 戕害한다는 根本的 大問題는 勿論이어니와 日本人本位의 敎員任用 가튼 것이 朝鮮人 靑年의 職業을 빼앗는 點으로서도 매우 重大한 問題이다

四

近者 그들의 國防計劃과 및 經濟的 施設 等은 이러한 敎育的 營爲와 아울러서 매우 顯著한 活動을 보히는 者 잇스니 師團의 增設이라든지 航空隊의 擴張 高射砲隊의 建設 特科輜重兵의 設置 가튼 것도 그 重要한 例이오 軍隊輸送의 便利를 爲한 國境軍用鐵道의 計劃과 裝甲列車의 準備 가튼 것도 그의 重要한 例이다 이러한 一便으로 產米增殖의 實現과 및 그에 附隨하는 土地改良의 事業이라든지 其他 造林 漁業 等의 企圖가 모다 日本人本位로 들어 가고 마는 것은 從來의 趨勢가 스스로 例外가 업는 일이라 所謂 物質結合의 方策이 자못 大規模로 勵行될 줄 알 것이다 그들의 온갓 條件 그의 社會的 諸勢力이 方今 朝鮮人을 凌駕하고 잇는 外에다 다시 彼等의 支配의 權力으로써 하니 日本人本位를 彈劾하는 것이 매우 迂遠한 것인 줄을 안다 그러나 彼等 爲政의 首腦者들이 항상 人爲的 偏見으로 도와 加하야 더욱 逆境에 沈淪하는 朝鮮人으로 서로 毗證함을 念할 수 업게 하니 吾人은 天下人心의 機微에 돌어보아 彼等의 謬見을 指彈하지 아니할 수 업는 바이다

獨逸王黨의 大陰謀暴露
陸軍高官도 參加한 可驚할 彼等의 畫策

(伯林十二日發) 獨逸의 右黨陰謀에는 陸軍部內의 高官이 加擔하얏다고 傳하야 警察은 「왼、룩크」大佐를 捕縛하얏는데 同大佐는 右翼한 王黨派의 團體 「아스레치크」俱樂部의 會長이며 陰謀의 一派는 獨裁政治를 宣布한 後 「도스」案이나 「로카르노」의 條約이나 「벨사이유」條約이나 모다 一時 投棄하고 軍國主義를 復活코자 한 것으로 押收書類에는 罷業을 하는 者 其他의 反動革命反對者는 死刑을 宣告할 旨의 印刷宣言文 等이 有하얏는 바 當局의 確言에 依하면 「니코라이」大佐는 尙今 捕縛치 못하야 土耳其에 在한 中 反動革命成功의 時에는 獨逸、露西亞、土耳其 三國提携를 實現하고자 劃策 中이엇다더라

伯林市에 對한 軍事計劃도 發覺
『캅』陰謀以來現政體에 對한 初有의 重大企圖

(伯林十一日發) 伯林警視總監公表에 依하면 極右派의 家宅을 搜査한 結果 右黨의 政治的 陰謀의 證跡과 共히 伯林에 對한 軍事的 行動의 計劃이 發見되엿는데 右는 『캅푸』陰謀以來 共和政體에 對한 最重大한 企圖이엇다고 하더라

雙方會見不成立
十二日에나 會見乎

(倫敦十二日發) 『쏠드윈』首相을 筆頭로 하야 閣僚全部는 『도닝그』街十番의 官邸에서 午前十一時十五分外지 勞働組合代表가 오기를 기다리엇든 바 同時刻에 至하야 勞働組合側은 和解條件成案에 就하야 坑夫側首領等과 勞働黨議員領袖와의 間에 數時間에 亘하야 協議한 結果 十二日 更히 會見하리라고 最終的으로는 希望되얏슴으로 當夜는 出頭하지 안은 채로 十一日 會見은 不成立 終了하얏다더라

罷業崩解는 萬無
就業者에게 罷業交涉

(倫敦十一日發) 本日 政府公報에 依하면 個人的 復業者는 漸次 多數로 增加하는 바이 써문에 아즉 罷業이 總히 崩解되지는 안흘 터이라고 思하며 勞働組合側에는 目下 就業中의 勞働者에 對하야 罷業參加를 交涉 中이라더라

政府의 重大閣議
罷業解決策에 關한

(倫敦十二日發) 政府는 首相官邸에서 目下 特別閣議를 召集하고 罷業解決에 關하야 重大한 會議를 開催하얏는데 一方 勞働組合側에서도 本部에 炭坑側代表와 會議를 開催하얏다 하며 이 形勢로 보면 政府側과 組合聯合側과의 會見은 今夜 中에 行하리라고 信한다더라

大僧正의 大奔走
罷業調停을 爲하야

(倫敦十二日發) 『켄터베리』大僧正은 總罷業에 關하야 本日 『쏠드윈』首相과 二時間에 亘하야 會見을 行한 後 更히 勞働者首領及 勞働黨員內幹部等과 二時間에 亘하야 一한 會見을 하고 種種의 意見을 交換하얏다는데 『켄터베리』大僧正은 其後 『쪼지』五世陛下와 親히 意見을 開陳하고저 하야 『씨킹감』宮殿에 伺候하얏다 傳하더라

顏氏組閣을 斷念
奉天派의 無誠意로

(北京十二日發) 顏惠慶은 今朝 再次 張學良을 訪問하얏스나 [illegible]를 得하고 面會치 안엇슴으로 顏은 遂히 奉天의 諒解가 잇기外지 組閣을 斷念하리라더라

鐵道網速成案
十年繼續計劃

鐵道局에서는 朝鮮鐵道網 速成에 關하야 來年度 豫算에 其第一步를 進하라고 旣報와 如히 工務課內에 鐵道網調査係를 新設하야 現在 政府의 財政狀態를 基礎로 하야 實現함이 반드시 不可能하다 認定치 못할 範圍內에서 가장 完全한 計劃案을 作成하야 第五十二議會에 民間의 輿論과 互相呼應하야 必勝을 期하라고 努力 中인 바 各方面의 事情을 綜合하면 鐵道局에서 目下 研究 中인

基礎案은 十年繼續年次計劃으로서 總額은 約二億五千萬圓 程度로서 其目標下에 目下 頻頻히 線路의 緩急에 就하야 調査를 急히 하는 模樣이다 그래서 右計劃案中에 包含하라고 考慮하는 中에 잇는 線에 就하야는 內務를 經由하야 外部에 [illegible] 一切 [illegible] 綜合하는 中인데 各方面의 [illegible] 及 平元線의 [illegible] 가 優先的 地位에 立할지오 其外는 一切 鐵道協會等의 計劃案及 各地方官廳의 希望乃至 民間의 陳情等도 參考로 하야 確實에 가우려지지 아니하고

朝鮮全體

의 開發上 本實的 立場에서 [illegible] 을 考慮한 後 決定할지라 目下 重要視되는 것은 咸北線中 元山 高城間, 順川, 熙川, 東海岸線, 滿浦鎭線, 全北線, [illegible] 線의 改造案 等으로써 물론 이 [illegible] 로써 볼 時는 財政의 現狀으로는 今後十年間에 一千哩의 延長을 望함은 至難할지며 從하야 今回 新히 作製되는 案은 매우 堅實한 것으로 通過의 確實性을 具한 것이라고 觀測되더라

人事消息

▲趙相衍氏(朝鮮通信中學館理事) 館務를 帶하고 十二日 間島方面에 出張

▲南京敎育視察團 江蘇法政大學 敎務長 王伯秋氏 以下 十三名은 豫定의 視察을 마치고 十二日夜 平壤에

▲木山喜一氏(大每社長) 十一日 午後七時 京城驛著入京

三千日耕土地로 勞働農校設立
吉會鐵道沿岸에서 金桂山氏獨力으로

中國 吉林省 敎化縣內 金桂山氏는 吉會鐵道線路沿邊인 城場溝에 잇는 自己의 土地 三千日耕(荒蕪地)에다가 移住民을 紹介한다는 바 開墾者의 便宜方法은 每戶十一日耕을 開墾하면 十日耕收入은 開墾者에게 一日耕은 地主의 收穫으로 하되 開墾費는 全部 開墾者의 負擔이라 하며 또 同地 同氏의 所有인 水田二百日耕으로는 該地에 農業學校를 設立한다는데 其經營方針은 學生으로서 水田開墾을 하야 學生의 學費를 除한 外에 收穫物 全部로 學校를 經營한다 하며 學生의 每日 勞働時間은 三時間이라더라

메-데-紀念講演禁止
間島銅佛寺에서

間島 龍井市內 朝鮮人思想團體인 萍友同盟과 文友會의 聯合으로 去一日 메-데-紀念大講演을 開催코저 其間 만흔 準備를 하여 오든 바 其後 在間島日本帝國領事館警察當局으로부터 過敏한 禁止命令을 當하엿슴으로 不得已 메-데-紀念講演은 水泡에 도라가고 마럿다고 (間島銅佛寺)

兩氏自首
金永輝 張赤波

全北民盟事件에 全北民衆運動者同盟事件에 對한 控訴判決은 旣報한 바어니와 本事件에 對하야 金永輝、張赤波 兩氏는 其間 病氣療養을 爲하야 蹤跡을 감추엇던 바 近日에 病이 全快되얏슴으로 去九日 午後十一時 列車로 群山에 到着하야 十日 午後二時 十分 當地法院支廳에 自首하엿는데 張赤波氏는 高等法院으로부터 如何한 命狀이 업다는 意味로 當分 自宅에 가서 기다리게 되고 金永輝氏는 各團體百餘名이 支廳外지 見送하며 檢事에게 護送되어 刑務所에 入하엿다더라 (群山)

過敏한 警察은
送別群衆解散

別項 報道한 바와 가티 全北民盟事件의 金永輝氏 自首就獄함에 對하야 當地各團體員이 見送키 爲하야 法院支廳 前場에 會集하야 刑務所 압헤外지 가려고 하던 바 警官은 突然히 集合群衆에게 解散을 命令하고 握手도 못하게 하엿다는데 그 理由는 本件의 共犯인 林赫根氏가 前日 就獄할 時에 見送하든 群衆으로부터 『無産者萬歲』를 高唱하얏다는 念慮이라더라 (群山)

蟾津水利組合
豫算은 卄四萬圓 工事는 來九月頃

慶南 河東郡 河東面 西蟾野는 蟾津江 沿岸에 瀕在하야 每年 洪水의 氾濫으로 農作物 其他의 被害가 數萬圓에 達하야 附近 住民의 生活은 除地업시 疲弊되고 經濟的으로 打擊이 되는 破滅을 엇지 할 道理가 업든 터이러니 當地 有志 諸氏는 十數年 前부터 水利組合의 便利를 先覺하고 [illegible]

投書函備置

本社 彥陽支局에서는 報道의 迅速과 地方 諸氏의 便利를 圖키 爲하야 彥陽市街 [illegible] 兩便에 投書函을 設置하엿다는데 만흔 投書가 잇기를 바란다고 (彥陽)

三千萬圓豫算의 赴戰江水力電氣
全部完成은 五年後
日窒專務野口氏談

日本窒素肥料會社 專務 野口遵氏는 本月八日 朝釜山 通過 京城으로 向하는 途次 朝鮮水力電氣事業으로 咸南 赴戰江 水電工事에 對하야 如左히 말하엿다더라

赴戰江의 水力電氣事業工事는 本年四月로 工事에 着手하야 目下 進行中인데 大正十八年 五六月頃에 五萬『키로』의 發電程度의 工程에 至할터이오 全部 完成은 大正二十年頃이 될터인데 實時를 當하야는 十八萬『키로』의 發電能力을 達할 터임으로 此에 要할 總經費 三千萬圓에 對한 大部分은 日窒會社에서 負擔하엿고 本社는 朝鮮에 設置할 方針이며 此의 水電을 利用하야 元山과 咸興의 二個所에 窒素肥料의 製造工場을 設置할려 하나 同肥料工場에 事業開始도 大正十八年 下半期間이 될터이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電力이 만히 남음으로 南北地方에서 電力을 使用하는 事業經營者가 續出하기를 希望하며 吾黨도 適當한 事業을 調査 中이라 더라 (元山)

副業奬勵로 養蜂術傳授
西鮮養蜂園에서

平南 龍岡郡 海雲面 葛城里 有志 李承祿 金允善 承聯河 諸氏의 協同으로 七十餘圓의 互資를 投하야 大規模의 養蜂園을 設置하고 朝鮮農家에 가장 有利한 副業의 하나로 養蜂을 全鮮에 普及식히기 爲하야 努力하는 中이라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今回 同園 養蜂舍도 竣工되얏슴으로 去八日에는 同園 落成式을 盛大히 擧行하엿다 하며 今十日부터는 正式으로 養蜂事務를 開始하엿다는데 特히 同園에서는 今回 同園의 落成됨을 紀念하기 爲하야 大大的으로 養蜂을 宣傳獎勵코저 養蜂의 天才란 稱을 듯는 同園 技師 李承祿氏의 養蜂術秘法을 公開하야 汎히 斯界 志望者에게 傳授하기로 되엿다는데 李承祿氏의 養蜂秘法을 公開傳授하기는 今回가 初試임으로 相當한 盛況을 豫想한다더라 (溫井里)

間島頭道溝 女子夜學復活
靑年會活躍으로

旣報와 如히 從來로 當地 女子靑年會에서 經營해 오든 女子夜學院은 그동안 敎授不穩하다는 口實로 當局에서 解散시키엿든바 此를 遺憾으로 생각한 當地 男子靑年會에서는 百方으로 活躍한 結果 同靑年會의 經營으로 다시 開院하게 되엿는데 目下 在學生이 四十餘名에 達하고 敎授는 白羽鶴 金榮順 李明韶 李海鵬 蔡歡崔 洌 등 六人이라더라 (頭道溝)

日新勞學修業式
原州郡 原州面 樓門 日新勞働夜學院 [illegible]

元山保光中學校에서
盟休를 劃策하던 二十名은 無期停學에
遠足地가 不滿하야

元山保光中學校에서는 去八日 市外 佛峰(시루봉) 等地에 遠足會를 催하라고 七日 生徒에게 公布하엿든 바 二年生 劉泰龍 外 二十名이 永興 麻島 等地로 變更하여 달나는 要求가 잇섯스나 學務當局의 不許로 前記 佛峰 等地에 遠足을 行하게 되엿던바 此를 不平으로 忌憚 劉泰龍 等은 當日에 參加치 아니하고 其他 生徒를 煽動하야 同盟休校를 劃策하야 進行 中임을 發覺하엿는 故로 學務當局에서는 十日에 劉泰龍 外 二十名에게 對하야 無期停學을 命하엿슴으로 前記 二十一名의 生徒는 學校當局의 處分이 甚히 苛酷하다하야 善後策을 目下 講究 中이라더라 (元山)

錦天幼園과 東光女學遠足
德城面月影山으로

江陵郡 邑 錦町 佛敎布敎堂에서 經營하는 錦天幼稚園生과 東光學院生徒 一同은 布敎師 金寶輪氏 外 金竹子 林美子 두 先生의 引率下에서 去七日에 城德面 月影山에 遠足하얏섯다고 (江陵)

兵營靑年 革新總會
會館落成後 一切가 刮目

慶南 晋山 兵營靑年會는 創立以來로 靑年事業에 만흔 努力을 하얏스나 恒常 會館이 업서서 集會에 多大한 困難이 잇슴으로 昨年봄부터는 一般會員의 義捐金과 地方有志의 多大한 同情金으로서 會館建築에 努力 中이던 바 이제야 비로소 壓倒的 苦鬪를 다 하야 結果 實로 近郡에도 唯一한 만한 總坪數 五十坪이나 되는 半洋式 會館이 竣工되엿슴으로 一般 會員은 喜色이 滿滿하야 一層 奮發하라는 氣勢를 가지고 一方으로는 배움에 주린 無産靑年 百餘名을 夜學케하며 또 一方으로는 一般會員에게 社會科學의 知識을 普及 [illegible]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hursday, May. 13th, 1926.

A TRIP TO KOREA

V

"Once upon a time," the old man begins.

Now this is going to be a real once upon a time story. You know that a once upon a time story is a story in which everything is not always perfectly true, but we would like to have all the things come true, and this is a very old Korean story which we would like to have some true.

"Once upon a time there was an old man who lived to be a thousand years old, and with him lived nine generations of his family, his sons, and his sons' sons, his son, his son, his son, his sons, his son, his son and his son, nine generations of sons, and nine generations of daughters-in-law, all lived together happily.

"Now the king heard about the nine generations of the family who lived together happily and never quarrelled. And so one day the king came to the house where the nine generations of the family all lived together happily and never quarrelled. And when the king came to the gate he knocked and the gate was opened by a servant, and the king said, "I want to see the nine generations of the family who live together happily and never quarrell for that is the way I want all the people in my kingdom to live."

欄 文 英

朝鮮訪問記 (五)

高敞高普維持策 (二)
一投稿歡迎— 啄木林

十四字 五十行 以內 住所氏名明記

◇君等이여! 覺醒하라 高敞高等普通學校는 高敞사람의 努力으로 經營할 것이요 決코 他의 이나 他道에 미두고잇지 못할 것이 아닌가? 學校가 門을 다치고 生徒들이 배울곳이 업서 道路에 彷徨하여도 君等만 飽食暖衣하며 肆然得志하야 高枕而臥하는 것이 君等의 滿足할 바이며 바라는 바일가?

◇前부터 風雨와 寒暑를 不顧하고 學校를 爲하야 奔走하는 任員諸氏는 그만두고 今番에 家屆 一萬圓 巡廻하는 林富氏 한 決心을 갓고 巡廻하는 아무리 良心 업는 者이라도 木石이 아닌 以上 되엿다 하여도 木石이 아닌 以上 數然 自愧치 아니치 못할 것이다 君等이여! 高敞을 爲하야 하는 것이 君等 의 高敞사람된 義務이고 社會에 資하는 것이 아닌 가?

◇다시 뭇을드러 高敞에 잇는 各 靑年團體에게 忠告의 一言을 드리고 저 한다 社會의 元氣는 血氣旺盛한 靑年에게 잇다 高敞에 서 高等普通學校가 存하거나 廢하거나 何等의 重大關係가 업다고 생각한다 하면 모르거니와 그러치 안타 하면 九仞이 나 旣成된 高敞高等普通學校에 一簣를 더하야 義務的 責任을 다하야 何等의 援助方針이 업시 袖手傍觀 冷淡한 態度를 取하는 것은 아모리 好意로 解釋하려 하여도 社會를 爲하야 熱烈히 奮鬪努力하는 點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아니 할 수 업다

◇高敞人士들이여? 有志나 青年을 勿論하고 慎重히 생각하여 보라 우리의 힘으로 創設한 高等普通學校의 基礎가 不完全하야 永續치 못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罪로 돌닐가? 今般에 任員諸氏의 總出動을 機會로 하야 積極的으로 誠意를 다하여 學校의 基本金을 鞏固히 세우고 永遠히 維持하야 高敞高等普通學校의 餘澤이 왼 天下에 미치게 하기를 바라노라 (高敞生)

十一日開學
安青學院
臨時安城靑校에서

京畿道 安城邑內 安城靑年會에서 經營하는 安靑學院은 當地 有志로부터 後援會를 組織하야 다시 開學케 되얏다 함은 已報어니와 復校하던 九十三名의 學生은 去十日 午後 八時頃에 一時 困難이 잇든 安法學校 敎室에 集會되얏섯는데 其間 前記 靑年會 委員長 金台榮氏의 熱烈한 努力과 同委員 諸氏의 誠意잇는 關係로 安城公立普通學校 敎室을 條件附 契約下에 當分間 借用키로 되얏슴으로 十一日부터 다시 開學키로 하엿다는 바 一般生徒의 喜悅는 데 이에 對하야 同學院 敎室 建築이 一時가 急迫함으로 一般人士는 同學院 後援에서 一層 努力키를 바란다고 (安城)

關東勸業株式會社
社屋落成及開業式

江陵郡 邑 本町 八番地 關東勸業株式會社에서 去七日 午前十一時에 新築된 社屋에서 盛大히 落成式及 開業式이 잇섯다는데 그 會社의 趣旨는 累報된 바어니와 나날이 破滅되는 經濟界의 搾取當하는 無産大衆을 엇지하면 共存共榮의 原則下에서 사러나갈가 하야 恒常 苦心하던 同志 二十餘人의 發起로 株式會社를 建設케 되엿는데 此는 民衆本位의 機關이라 할 수 잇는데로 一人 一株의 本位로 하야 完全한 民衆의 經濟機關을 完成코저 努力 中이던 바 今日에 開業祝賀와 社屋이 落成되야 一般은 喜悅을 不勝한다고 (江陵)

메데紀念盛況
行列만은 禁止

龍井 少年會 龍井 少年軍 名은 日中 警官의 嚴重 警戒裡에서 어린이데-紀念式을 五月一日 午後二時부터 市內 侍天敎堂內에서 擧行되엿다는데 定刻에 至하야 樂어린이 唱歌 祝辭 奏樂 等이 有하엿고 閉式後 當外 庭院에서 出하야 巡廻行列을 한 後 어린이데-萬歲三唱으로 散會하엿다 하며 市街 行列은 當局의 禁止로 因하야 中止하엿다 한다 (間島)

一、獨唱 金福順君
一、童話 닥대와 엇소 李南山君
一、하모니카 書和順君
一、童話 반편 李澗植君
一、하모니카 崔長元君
一、숨바꼭질 會員一同
一、獨唱 金相鉉君
一、盲人과 코끼리 會員一同
一、獨唱 李亨燮
一、時來에 希望잇는 少年 崔長元
一、하모니카 合奏 金順錫 兩君
一、少年의 眞心 會員一同
一、獨唱 李亨燮
△來賓의 感想談 仙友 少年會 楊順永 新興 少年會 李泰海 州 靑年會 少年部 順腎君
(第二日은 兒童의 父兄 兄姉 된 으로 盛況)

庭球俱樂部
汶山에서 組織

汶山 有志 數人의 發起로 우리는 이 世上에 서 活動함에는 무엇보다 도 運動이 必要하다는 意味와 또는 健全한 性格이 아니면 到底히 他人 과 對立할 수 업다는 意味로 써 去九 日 午前十一時 郡廳 코트에서 汶山 庭球俱樂部를 組織하얏다는데 郡 廳의 諒解를 得하야 以後도 同 코트를 俱樂部 코트로 使用키 로 되얏스 며 當日 入部한 會員은 恭十餘名에 達하고 任員 選擧와 其他 決議事項 은 如左하다고

△役員
部長 金子精 副部長 李達雨 幹事 崔定鉉 荒木倉一 會計 李根元 神川

△決議
一、五月末日 以後에 入部하는 者는 入部金 一圓을 徵收할 事
二、獨立生計를 하는 者는 每月 部費 五十錢 其他 修業中에 잇는 사람은 二十錢으로 할 事
三、部費은 每月 十五日 以內에 徵收할 事 (汶山)

南醫師의 特志
黃海道 平山郡 南川驛前 南一醫院 院長 南澤熙氏는 刀圭界에 名醫이 藉藉할 뿐 아니라 南川에 開業한 以來 患者에 對한 親切은 勿論이요 特히 貧寒한 村落人士에게 無料施診으로 隣近人士는 氏의 厚意를 稱頌한다고 (南川)

淳昌個人庭球
盛況裡에 終了

本月 九日 本社 淳昌支局 主催로 全淳昌 個人庭球大會를 開催하엿는데 參加選手 十五組는 數百名의 觀客 滿場의 拍手裡에서 圓滿히 終了하엿는데 受賞者의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一等 前衛 權龍燮 後衛 李炳宰
二等 前衛 朴吉道 後衛 林水童 (淳昌)

海州「어린이」紀念
兩日間大盛況

海州邑內 新興少年會 主催로 海州 靑年會館에서 九日 十日 兩日間 繼續하야 어린이날 紀念式과 歌劇을 擧行하엿는바 會集하는 어린이들은 人山人海를 일우엇고 其翌日도 亦是 人山人海로 盛況을 일운 中 旗行列은 禁止되야 旗外지 押收를 當하고 司會 金永珍氏는 九日 夜 十一時頃 海州署에서 無數亂打를 當하엿다는데 그 亂打한 理由인즉 어린이가 壯年에게 壓迫 반는다는 말이 不穩하야 亂打하얏다 하며 그 翌日 上午 一時頃에야 放送하얏다 하며 其外에도 別別 可笑의 事가 多하얏다는데 當時 式의 順序는 如左하다더라

△第一日
一、개회사 金榮珍君

汽車故障으로 遲刻

八日 午前 六時 三十三分 汶山驛 發 龍山行 第七十七號 列車가 中途에 機關車 故障이 생기여서 到着치 못하엿슴으로 汶山 京城間 通學生 十五名은 全部 次回 列車로 上京한 關係로 遲刻 或은 缺席이 되엿다 더라 (汶山)

文鳳夜學學藝會

黃海道 長淵 文鳳 夜學院에서는 去十日 午後 八時 長淵 公會堂에서 學藝會를 開催하엿다는데 定刻 前부터 雲集하는 觀覽客은 場內 場外 立錐의 餘地가 업시 人山人海를 일우엇는데 定刻이 자 元春道氏의 開會辭를 비롯하야 二十餘 種의 學藝도 多數 觀覽客에게 無限한 感興을 與하엿 스며 滋味스러운 餘興으로 마치고 有志 諸氏로부터 左記와 如히 同情이 잇섯스며 同 十一 時頃 盛況으로 [illegible]

◇寸鐵◇

◇【三陟】 시집간지 五個月 만에 產兒를 壓殺한 少婦가 잇다 單純한 일갓지마는 여러가지 缺陷의 表證

◇【定州】 男便의 나히 만타고 夫를 남 하고 逃走한 少婦가 잇다 單純한 일갓지마는 여러가지 缺陷의 表證

◇【寶光】 二十七歲의 少婦가 시앗을 보고 縊首自殺을 하얏다 單純한 일갓지마는 여러가지 缺陷의 表證

地方人事

▲金東濬氏(本社 金化支局 記者)는 十一日에 支局用務를 帶하고 二日間 金城方面에 出張

●班城靑年同友總會 晋州郡 一班城面 靑年同友會에서는 五月八日 零時부터 倉村里 晋東講習會內에서 第一回 定期總會를 開催한 바 決議事項은 如左하다고

△決議
一、經過報告 二、維持方針 三、規約修正 四、會名改稱 五、會館建築 六、樂器購入 七、晋青部聯盟加盟 (班城)

●論山仁川靑年總會 忠南 論山郡 陽村面 仁川 靑年會에서는 去五月 九日 同 會館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左와 如한 決議事項과 委員 改選이 잇섯다고

△決議事項
一、過當한 小作料를 徵收한 地主 等에게 警告文을 發送할 件
二、純宗孝皇帝 因山 當日에 遙拜式을 擧行할 件
三、民運事件의 張日煥 家族을 慰問할 件
四、會費 收納에 關한 件

△改選委員
蘇秉直 金昌奎 申大休 黃河淑 李元植 孫炳植 安孟淳 金榮信 李康福 (江景)

◎定州聯合會의 細胞團體 代表會 延期 定州聯合會에서 開催코저 하던 代表會議를 來十五日에 開催코저 하던 바 準備 關係로 來 二十三日로 延期하야 同 會館에서 開催한다고 (定州)

閉會하엿다고
△同情人士
同情費 決議 三 李奉淵 [illegible] 各一圓 至 [illegible] 支局 各 [illegible] 支局 郵便局員一同 大打 東亞 支局 朝鮮日報 支局 鉛筆三打 各 鉛筆五打 (長淵)

社告

今般 本報 金堤支局長 辛泳祿氏는 事情에 依하야 辭任하얏삽기 其代로 總務 李奉吉氏를 支局長으로 任命하야 支局 事務를 引續 處理케 하얏사오니 一般 愛讀 諸位는 以此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去十一日付 本報 第二〇三〇號 朝刊에 發表된 安邊支局 社告 中 支局 位置를 安邊驛前으로 記入된 것은 「釋王寺驛前」의 誤記이기 玆에 訂正함

朝鮮日報社 白

模範家庭工業 鉛筆製造機械 永久生活安定

作業 當한 趣味 簡易한 人生 製品 多少의 資本으로 簡單한 家庭에서 生產할 수 잇는 ... 原料의 供給은 無料 ... 大阪 梅田 ... 浪速製作所 電話 土佐堀 二三六 二三七 ...

京城府 授恩洞 三二番地

朝鮮商會의 靈蘇丸

電話 光(長)一七八五番
消化不良에 吐瀉霍亂에 流行怪疾에 居家旅行에

●情交의 研究 珍書! ●性學大家 澤田順次郎先生 新著
圖解 男女 生殖器 詳解 及 性交法의 研究 疾病 自宅療法

空前의 秘書 ... 男女生殖器의 構造 ... 交法 ▼ 避姙 ▼ ...

한 珍書이라 ... 【生殖器病 ▼ 神經衰弱 ▼ 陰萎 ▼ 早漏 ▼ 梅毒 ▼ 淋病 ...】

新聞 代金 壹圓廿錢 送料 ... 東京 麻布 富士見町 ... 振替 東京 四九四八四 ... 正文社

種蜂 巢礎

●營業案內 無代進呈
開城 高麗町 三星農園 振替京城五一〇八番 電信略號 (산오)

有利 好職 四十圓 特設 ... 大阪 玉造 ... 豐國總本店

◇因山彙報◇

因山行列과路順
國葬委員會에서決定
그외에도협의사항이만타

순종효황제의 국장의(國葬儀)네삼위원회는 십이일오후 두시오십분경에 개회하고 향전(香殿) 위원장이하 위원전부가 출석하야 행렬(行列) 로순(路順)과 행렬편성, 봉결식장의 설비, 사진촬영의취급과 궁중석차(宮中席次)를 가진자이외의 참렬자범위등에 대하야 협의가잇슨후 오후다섯시십분에 폐회하엿다는데 당일결정된 사항중에 중요한것은 다음과갓더라

一、行列의路順은昌德宮을出하야敦化門을거처서觀水橋를渡하야黃金三丁目에出한後右折하야黃金町六丁目에서다시左折하야訓練院廣場에

一、奉訣式場의設備는大體工營係의設計와如히決定하엿스나그細部에就하야는工營係에一任함

一、寫眞撮影取扱에就하야는儀式係及警察當局으로부터提出한原案의趣旨와如히 決定함(一次審議한後近近發表함)

一、宮中席次를持치안흔參列者의範圍에就하야는李王職及庶務係와協議한後決定發表

朝鮮博 第一會場火災
그러나큰일은업시 즉시진화하얏다고

십이일오후 네시 십분경에조선박람회 데일회장인 남산왜성대식산국구뎡사이층 삼원 오녹뎜진렬장의 련졀에서 누뎐(漏電)되야 불이이러난것을 즉시발견하야 커지기전에 곳진화되얏는데 시내각소방대와 소관경찰이출동하야복잡을이루엇다더라

警察部高等課 俄然活動開始
해외에서잠입한청년이 돌연그자최를감추엇다고

지난삼십일에 국경방면으로부터 잠입한 청년한명은시내황금뎡 최모(崔某)의집에 잠복하면서 날마다 황금뎡이뎡목우편소에서 암호뎐보로써 중국상해에잇는 가정부와 련락을취한형뎍이 잇섯슴으로 경긔도경찰부고등과에서는 동청년의 행동에 대하야 엄밀한 감시를하고잇는중에 돌연히십이일 오후부터그청년은 형적을감추고 말엇슴으로 목하 도경찰부에서는각방면에 루첩을 돌려그의행방을엄탐중이라더라

靈岩에 勞働爭議
두됴건을뎨출하고 동맹파업을단행

전남령암군 령암금융조합 부디매축(靈岩郡 靈岩金融組合敷地埋築)인부 령암로동회원(靈岩勞働會員)백여명은 지난구일오후세시부터 동맹파업(同盟罷業)을단행하엿다는바 그내용을 듯건대 당디금융조합을 새로건축하는데 일본인청부업자(請負業者)와로동자들과 당초계약할때에 흙한뎌에십이전식 작정하엿든바 청부업자는 디평면(地平面)에서흙을노치아니하고 울퉁불퉁한디면에 뎌를노하 당초에 네지게를 지면한뎌식 되든것이 칠팔지게를 져가도 차지아니함으로 종일피땀을흘녀 로동을하야도 칠팔십전에 불과함으로구일오후 두시부터 령암청년학원(靈岩靑年學院) 강당에서 긴급회의를열고 다음과가튼 됴건을 청부업자에게 교섭하기로 하야 만일듯지안는 경우에는 본회원은 어듸까지든지 파업을계속하기로 한다더라(라주)

一、從來一擔에十二錢式을十四錢으로할것、

二、積上土를반드시地平面에할것、

乾盃를擧하야 各其健康을祝하며
작별키를못내섭섭하야한 中國南京教育視察團歡迎會

강소법정대학교무장 (江蘇法政大學教務長) 왕백추(王伯秋)씨를단장으로한 중국남경 교육시찰단(南京教育視察團)일행이기간경성에 들어와서 각방면으로 시찰하는중이라는것은 이미 보도하엿거니와 십이일 오후두시부터 시내에잇는 유지교육자와 언론계 밋기타각교화단톄(敎化團體)의유지 인사약삼십인이 남대문통 식도원(食道園)에 모히어 전긔시찰단의 환영회를열엇섯는데 박승빈(朴勝彬)씨가 주최측을 대표하야 개회한취지와 환영하는뜻을간단히 말한후 주빈(主賓)측으로 단장 왕백추씨가 간곡히 감사하는뜻을말하야 두번재조선에온 감상을 진술한후 식탁을대하야 주객이 환담을다하다가 탁상연설이 시작되매 안재홍(安在鴻)씨가 일어나 조선과중국의 력사상관계와 오늘날의 처디를들어약간말한바잇섯고 주빈측으로 다시학영청(郝映青)녀사의 처음으로 외국에나온 감상담과 조선에와서바든 깁흔인상을 말한바잇섯고 오성련합군총사령부고문(五省聯合軍總司令部顧問) 호서화(胡庶華)씨의 감상담이 잇슨뒤에 최종으로 단장 왕백추씨가잔을들어 주인측의 건강을빌으며 떠날길이 밧버서 충분히간담을 로하지못함이 유감이라는 뜻을 말하야 일동이 모다잔을들어서로건강을 빌고별실에서 긔념사진을박힌뒤에 산회하엿는데 일행은 모다십이일 오후일곱시발차와 동열시오십분발 차로경성을떠나 만주로거처 본국에돌어가는길로 향하엿스며 동단원의 씨명은알에와갓더라

◇中華民國南京教育考察團
團長 王伯秋
蔣維喬 胡庶華 楊孝述 金一新 廖世承 陸殿揚 姚醒黃 金森寶 張世毅 劉靖夫 劉鏡澄 高君珊 劉陳芬資(女) 郝映青(女) 劉學志 劉令鑑(女) 曹美恩(女) 陸唐瀛 李毅 馬飲冰 陸志鴻

(사진은환영회광경)

武裝한朝鮮人 黃海道에潛入
이정보에접한경찰부는 불면불휴의활동을계속
警察活動과人心洶洶

십일일이래로황해도경찰부 (黃海道警察部)에서는 해주경찰서와협력하야 사건의 내용을절대비밀에부치고 해주디방을 비롯하야 도내일대에 엄중한경계망을느려누고 대활동을 계속중이라는데 그내용에대하야 탐문한바에의하면 수일전에 국경방면으로부터 무장을한 조선인들이연백군(延白郡)에 잠입하엿다가 다시해주디방으로 드러갓다는 정보를접하고 그와가티대활동을 계속중이나 아직까지 하등의효과를 엇지못하엿슴으로도내인심은 전긔 흉흉한상태에잇더라(해주지국뎐보)

因山 (continued) — 友人父親을 僞造便紙로詐欺
사회에삼칠원편취

원적을 강원도평강군 목뎐면 탄동리(江原道平康郡木田面炭洞里)에두고 현주고양군숭인면뎐농리(高陽郡崇仁面典農里)이백오십삼번디에잇는 김재선(金在善)(二0)이란자는 경성공립농업학교(京城公立農業學校)생도김일영(金一榮)(一七)을 아는것을 긔화(奇貨)로삼아 전긔김일영의고향인 함남안변군안변면 대와리(咸南安邊郡安邊面大瓦里) 일백사십 구번디에사는 그의부친 김세농(金世農)(六二)에게 위조편지를하야 금년삼월 이십오일이래로 삼회에 합계삼칠원오십전을 사취한사실이 발각되야 지난십일 동대문경찰서(東大門警察署)에인치되야 방금취됴를밧는다더라

英本國總罷業과 在留英人의態度
대안의화재처럼무관심

영국(英國)에서돌발된총동맹파업은 전세게에이상한 충동을주고잇슴으로 경성에 재류하는백여명의 영국인에대하야 일반은 엇더한 흥미를가지고 주목하고잇슴을불구하고그들의영인들은 이번총파업을대단시하야전연히 무관심한태도를취하고잇다더라

傷害被告人
사실전부를부인

김포군양동면신뎡리 (金浦郡陽東面新亭里) 일백팔십사번디김흥문(金興文)의집에서는수일전에 전긔김흥문과 그부근양동수리조합긔관수 (陽東水利組合機關手) 다니는김원학(金元學)과 박모(朴某)세사람이술을먹다가 김원학과 김흥문사이에 엇더한 감정문데로 피차언쟁이 생기여 일시격투까지 일어낫섯스나 엽헤잇든 사람의 게지로각각헤여저 집으로도라갓섯든바 그부근에사는양동수리조합조수 (陽東水利組合助手) 남뎍채(南延彩)(三一)와그의부친되는 남두원(南斗元)(五一)두사람이 전긔김흥문의집으로 달려가서 자긔수리조합에다니는 김원학이를 따리엿다는 혐의로 전긔김흥문을 무수히란타한결과 전신에 중상을시키고 혀장에는 류혈이림리하야 일시혼도디경에일으럿섯슴으로 피해자 김흥문은 즉시경성모병원(京城某病院)으로입원을하는 동시에 이주일이상치료를 요할 진단서를 첨부하야 전긔남뎍채의부자를걸어 당디 김포경찰서(金浦署)로고소를뎨긔하얏슴으로 동서에서는 즉시 남뎍채를인치하고 방금취됴중이라는데 가해자남뎍채의부자는사실을전부인한다더라(김포)

天井崩落으로 오십여명부상
活寫撮影中

십일일오후 여덜시경에 동경부하남갈식군귀청소학교 (東京府下南葛飾郡龜靑小學校)에서 동경부(東京府)주최로경제진흥에 관한활동사진을 촬영하든 것을 오백여명의청년남녀가구경하고잇든중 돌연히 교사의텬정이문허저서일시대혼잡을이르키며중경상자오십여명을내엇다는데부상자는방금부근병원에서응급치료중이라더라(동경뎐보)

平電値下問題 府尹調停도保留
긔성회의태도강경으로

평양뎐긔치하운동 (平壤電氣値下運動)이일어난이래의 모든진행에대하야는누보 하엿거니와 일천부터 평뎐측의 도전뎍태도가 로골뎍으로나타남에딸하 조선인측의 태도가 더욱공고하며 뎐긔치하실행위원회에서는 녀욱 동정소동까지 결의하야잣놋 백열뎐이 개시되려 하엿섯는바 이에대하야는 경찰당국에서는 만일을 경계코저 일시실행위원에게 동정소동을 말리는동시에 평뎐측에 대하야는 강제소동을 못하게 엄밀주의까지 식히는등 간섭이 비롯하엿섯스나 실행위원들의반항과부민의태도가강경하엿슴으로 경찰당국에서도 직접간섭을 중지하는상태에 이르럿스며 부윤도자진하야 조뎡을 일임하여달라고 전긔 실행위원에게청한바 긔성회에서는 조뎡의긔한과 오십전표준액을 됴건부처달라하엿섯스나 부윤은 무조건으로일임하라는등지난십일까지 련분이잇섯스나 긔성회원은 듯지아닛슴으로 부윤의됴뎡도당분간보류할형편이라더라(평양)

癇疾發作中 개천에墜落

십일일 오전열한시 오십분경에 시내서대문밧 흥화문(興化門)압 펴는 개천에 멀칠붇세움 되여보이는 산애한명이 싸저집지안은것을 순행하던경관이 발견하고 즉시쓰내여 민(閔)경찰부 의사의 래진을청하야 응급치료 한결과 소생하엿다는데 그사람은 교북동(橋北洞) 사번디 홍준관(洪俊寬)의손자창남(昌男)(八)으로 그곳을지나다가 본병인간질을 이르키여 그와가티개천에 싸진것이라는데 조금만 늦게발견하엿드면 죽을번한것을 다행히구한것이라더라

大興普校長 傷害罪로被訴
생도가동맹휴학한결과 선동하얏다고무리구타

충남례산군대흥면동서리백칠십이번디 (忠南禮山郡大興面東西里一七二) 리학구(李鶴求)(三四)는대흥공립보통학교장산본무이(大興公立普通學校長山本武二)를 상해자로 지난팔일에 상해고소(傷害告訴)를공주디방법원홍성지텽검사국 (公州地方法院洪城支廳檢事局)에 뎨출하엿다는데 그 자세한내용을 듯건대 지난 삼월경에 동교생도가모훈도의 배척으로 동맹휴학을한일이잇섯는데 전긔 산본교장은지난 사일오후열시경에 대흥읍내김규순(金圭淳)의집에서전긔피해자 리학구를맛나서 무단히 구타하며 말하되 네가삼월경에생도를 권고하야 동맹휴학을하게하엿다하며 무수구타한바 전긔리학구 (李鶴求)는 절대그와가튼사실이 업다하야 일대활극을연출하엿고 겸하야산본교장은 그동생산본행헌 (山本幸憲)과그의 처남 풍영중행(豐永重幸)을 시키여 권총(拳銃)을 가저오라하며 이놈을쏘아죽이겟다고하며무수구타하야 류혈이림리하게되야 한참은위험하게되엿든바 홍주재소순사가 현장에와서 중재하엿슴으로 생명을보존하야 가지고례산읍내공의에게와서일주일치료를요한다는진단서를 마련서 이를첨부하야검사국에고소를 뎨출한것이라더라(례산)

稀貴한少女
일반이칭송불이

전남라주군 라주면북문뎡(全南羅州郡羅州面北門町)김창순(金昌順)의 장녀김련봉(金蓮峰)은당년십륙세의 소녀로 어렷슬때에 그의모친을여의고 재산조차업슴으로 그의부친은 날마다품을팔아 부녀간에근근히 그날그날을지내는중 효행(孝行)을다하야 그의부친을섬기며 현재라주우편소에 뎐화교환수로 잇는데매월 십이원이라는 박봉을바다가지고 자긔외읍바인 현재광주고등보통학교 이학급(光州高等普通學校二學級)에 통학중인김명규(金明奎)의학비를계속지불함으로일반인사들은 칭송이 자자하며개벽사라주지국(開闢社羅州支局)에서는 신녀성(新女性)잡지일년분을 무대진정한다더라(라주)

葬後五個月만에 屍體를發掘解剖
초심에서무죄판결된것 평양복심에서출장묘사

문뎨거리이든해주읍해룡자동차부운전수 홍용표(海州邑海龍自動車部運轉手洪容杓) 사건이해주디방법원(海州地方法院)에서는무죄로되엿든바 피해자 최락도(崔洛道)측에서 평양 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으로공소를뎨긔한바 그후평양복심법원에서도 길게쓰러오든중 지난팔일에 평양복심법원 산근판사(山根判事)와윤달수(尹達秀) 서긔와동역생이 해주에출장하야 해주의원부원장정구충(副院長鄭求忠)씨와부원장대리 김윤구(副院長代理金潤求)씨와 공동묘디 (共同墓地)까지 출장하야두든지오개월이 넘은시톄(屍體)를 해부(解剖)하엿는데

죽은원인은노출혈

(腦出血)이라는바 평양복심법원에서는 의사의감정에 의하야판결되리라는데 이제그건의 사건발생한후내용을 듯건대홍용표의차가해주서문밧(西門前)에서 운전하여 드러왓는데 그후지나는 사람들이본즉 사람이넘어지엿슴으로 그때 곳홍용표가잇는해룡자동차부로알려서곳병원으로 가게되엿는데 그때에 넘어젓든사람이 넘어진장소(現所)에서약일뎡이나되는 해주의원(海州醫院)까지 가서는 아무정신업시

넘어젓다

하며병원에서도아무 수당을 하지아햇다는데 그때에 아모수당도 하지안흔것은다리고온 운전수 홍용표가술취한사람이니 무엇이니하며 어물거리고 진단하야달란는 말은 업섯슴으로 유급 수당도못하고 그저도라가서 최락도의집에 뉘엿든바 그의부모는곳해주읍내일신병원 박의사 (日新病院朴醫師)의출장을 청하야 주사도 여러번노핫스며 사오차를 장하엿스나 이틀만에 사망하엿다는데해주디방법원에서는 이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무죄판결을 하엿다는데 그뼈에 엇재서해부는 못하엿노고 오개월이 넘은이때에 평양복심원에서 출장하야 해부케되엿는지는 알수업스나 그뼈해부한결과에의하면차에치어서죽은것은아니라하며두개골(頭蓋骨)이 깨지고노출혈(腦出血)이되여죽은것만은분명하다더라(해주)

나히만타고 男便을背反
간부를따라도망

경의선 고읍역전(京義線古邑驛前)에는 구진비가나리는지난십일밤 열시경에 비를마저가며사오명의 장뎡과 이십내외의젊은녀자한명이 역전뜰은 길에서가거니 죽어도못가겟다거니 하야울며불며 발악을 하야거리사람들의 이목을 놀랜한막희활극이잇섯는데 이제그내용을 알어보면 뎡주군 남면보산동 (定州郡南面寶山洞) 승우준 (承禹俊)의안해조씨는전긔 본부에게 시집을가서살어오나 항상 본부의나히만흔것을불만이녀겨서로금슬이 조려못하든중 동군서면석성리 (同郡西面石城里) 김흥순(金興順)이란청년과 몰래 외정을통하야 오며 수차나 본부의집을 다라낫스나 본부는 아모말도업시 다려왓섯는데 지난 구일에는 또다시다라낫슴으로 당디경관주재소에 고소하엿슴으로 엄중한설유를밧고도 여전히본부의집으로는가지아니하겟다고 그와가티야단을햇다더라(뎡주)

全家族이河豚中毒
戶主는畢竟慘死
그는고명하든됴각가

요사이도처에서복어(河豚)중독으로 빈빈히생명을 빼앗기든중 지난사일강원도삼척군북삼면구호리(三陟郡北三面九湖里)김원초(金源初)씨의집에서는복어를 사려먹고 전가족이 중독되야고민하든중 동일오후구시경에 김원초(五六)씨는드듸여불귀의객이 되여 일대참극을 일우엇는데그내용을 들으면 호주의장남김태영(金太榮)(二三)이가 바다에서복어를 잡아다가 전가족이난호어먹고 김원초씨는 내장을먹엇든것이 즉석에서 고민하기시작하자 토혈을만히하다가 략십분간이못되야 참사를하고 말엇는데 그는우수한 조각가(彫刻家)이요 장식세공(裝飾細工)등에재사(才士)로명성이자못놉흔터이라하며 그의가족은 그의수입으로 근근히 생활을보전하야 오든터임으로 장차 그유족은엇지할줄몰라 다비애중에잇다더라

有室有子한者가 남의딸과逃走
발각되야잡혓다

지난구일밤 열한시경에 전남령광읍내 일출려관(全南靈光邑內日出旅館)에투숙하는 일본사람 두청년남녀(靑年男女)를 당디경찰서(當地警察署)에서돌연히검속하야하로밤보호하엿다가지난십일아츰에방송하엿다는데이제그내용을탐문한즉 전긔두남녀중남자는호남선삼향역원산본신조(湖南線三鄕驛員山本新助)(三三)오녀자는동역원정뎐삼랑의딸정뎐유기(同驛員井田三郎女井田ユキ)(二六)라는데 산본이란자는 상당한가뎡을일우고 본처와 아들과딸이삼형뎨나 잇는자로서 전긔정뎐유기의 어엽븐얼굴에탐하야 비밀 관계를맷고사람의 눈을소기여오든바 날이갈사록 두사이의정은 더욱깁허가고 영원히부부되고십흔 생각으로두남녀가번민중에잇다가필경에그와가티도망하기로결뎡하고령광으로와서전긔려관에서두류하든바 뜻밧게 남편과딸을일흔가족들은바로함평경찰서(咸平警察署)에 수색원을뎨출하야간곳을 엄탐중에, 령광경찰서에서발견하야하로밤보호한후지난십일아츰에 가족에게 인도하엿다더라(령광)

시앗보고自殺
가뎡불화로지나다가 돌연히시앗을보고서

전남령광군령광면량평리 사백륙십사번디 뎡옥선(全南靈光郡靈光面良平里 四六四番地 丁玉先)(三三)처 한성녀(韓姓女)(三三)는 지난날밤에 남모르게집뒤소나무 가지에 치마로 목을매여 죽은것을 그동리(洞里)사람들이 구일아츰에 발견하고 일대소동이 일어낫다는데 이제그내용을 탐문한즉 한성녀가 대정구년 칠월분에 뎡옥선에게 싀집을온후 이래부부간에 정의가조치못하야 늘가뎡불화로 지내오든바 뎡옥선은 항상한성녀에게 대하야 나는다른곳으로 다시 장가를가겟다고 하엿고 한성녀는 장가를가거나 가는것은나는모르겟다고하야 왓는데 지난륙일에 돌연히뎡옥선은 고성녀(高姓女)(一八)란 처녀에게로 장가를들고 팔일에신부고성녀를 다리고왓는데 한성녀는 그날모든수종을 다하야주고 자긔의장래를비관하야 그와가티 죽은것이라는바 두살먹은 어린아들 한아까지 잇다더라(령광)

鄭順桂는 自殺로判明
본부는무죄백방

대구(大邱) 시외달성군 구지면주원동(達城郡求智面周院洞)황윤청(黃允淸)(五一)의 안해 정순계(鄭順桂)(三八)를죽인범인으로 그의남편 황윤청을 이래대구서에서 엄중취됴중이라함은 본보에루보한바어니와 그후 동서에서는 여러가지의 증거라든지 또는시톄를해부한결과라살이아니고자살로 판명되아 지나간십일오후한시에 전긔 황윤청은살인범인이라는 루명을 버서나그대로방면되얏다더라(대구)

結婚五個月만에 產兒壓殺한少婦
류산이라고변명하다가 의사의검시로필경판명

강원도 삼척군 북삼면신흥리육백일번디 (江原道三陟郡北三面新興里六〇一番地)에사는최준문(崔俊文)의 이남룡순 (龍淳)(二三)의안해박량여(朴良汝)(十九)라는소부는영아압살범으로지난사월이십일에 당디 경찰의손에 톄포되야 엄중한 취됴를밧는중이라는데 그내용을 들으면박량여는 작년십월에 룡순과결혼하야 출가한지 오개월만인금년 삼월십일오전 한시에자택에서 아이를나헛는데 자긔의 부정함이 탄로될가 념려하야가족에게까지알리지안코 즉시 눌러죽인후에버린것을 다시식부(媤父)와공모한후 거적에싸서동리압산에무덧든것이라하며범인은 류산(流産)이라하야지난어일당디김공의(金公醫)가해부한결과 만삭(滿朔)넘어이를나허놀려죽인것으로판명되엿다 더라(삼척)

靈岩公普生 盟休奉悼
학교당국의 지휘가업슴으로

전남령암군신북면신북공립보통학교 (靈岩郡新北面新北公立普通學校)생도삼백여명은 지난칠일아츰부터 일제히 동맹휴학을단행하엿다는데 그내용을 듯건대 순종황제(純宗皇帝)승하발표가잇슨후 련진한만한 지회에의지하야 망곡과성복을 하라하엿스나 십여일이경과하야도 아모지휘도업슴으로 오학년생도 칠십여명이 비밀회의를열고 학교당국자의 너무나무성의함을 비난하고 우리의최후황상을 봉도할차와고미교장(高尾校長)에게 정식교섭할것을 결의하고 칠일부터 동맹휴학을 단행한바 전교생도가 일제히 가담하야형세가 험악하게되엿다는바 학교당국자들은 크게랑패하야 일변생도를 진무하엿스나 생도들은 도저히 듯지아니함으로부득이교장이 삼일간휴교(休校)를 선언하고 봉도의뜻을 삼가표하도록설유하엿든바 생도일동은 동일정오경에 학교강당에서 봉도식을거행하고 이어서 일제히청복한후 삼일간은 휴업을권폐하고근신의뜻을 삼가표하기도 하엿다더라(광주)

情郎과싸우고 飮毒한女性이

권일,종로식당(鍾路食堂)에 녀급사도잇던장명숙(張明淑)(二0)이란녀자가 시내 수송동(壽松洞) 일백이십오번디 김영년(金永年)(三)의집에서 지난십일오후일곱시경에 사람업는틈을 엿보아『백알』에 양잿물을타서 마시고 신음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즉시부근청진의원(淸進醫院)의사를청하야 응급치료를한결과 생명에는다행히 관계가업시되엿다는데 지금 그자세한바를드른즉 장명숙은 작년겨울을 종로식당에잇슬때 나희젊은 긔생외 련남녀간의 사랑에 김에게는 본처가잇는줄알면서도정에끌리여장명숙은금년이월부터전긔장소에 김과동거하게되엿는데 동거한후부터 충생컨 심하는 모든 난문뎨로 말미암아 마츰내두사람은 싸우게되엿는바 이에비관한장명숙은드듸여그와가티자살하랴음독한것이라더라

『昨日斷指烈女가 今日背夫淫奔』
그의실제사정이 이러한것이라고

남편을위하야 단지(斷指)한 녀자로서 남편의병을 치료하든의생의첩으로 들어간일이 잇다함은본보에 이미보도한바가 잇섯거니와 그긔사를본 그녀자의본부인 최칠성(崔七星)은 다음과 가튼 뎡정 신정을 뎨출하얏더라

◇訂正申請 謹啓陳者大正十五年四月二十一日附貴社發行朝鮮日報第二千十號朝刊第二面『昨日斷指烈女가今日背夫淫奔』이라題한記事는本人이元來慶北迎日郡川生으로身勢崎嶇하야距今十四年前부터纖病의惡魔에罹하야夫負를妻하고谷方으로求於名醫하든中甲子正月二十五日에妻金時德과同伴하고慶北의名醫이縮紹한山郡좌西面西河里醫生崔成翰氏에게治療를밧기를請함에崔醫하야全治誓約을請함에 ... 은快한態度로서失望의食事外지日數하고無料醫治하겟다함에近方有志諸氏도同情을捧한것은感謝不已이오나實際上談料金이라고는現金二十五圓六十八錢에不過하며一次도要되는金時德에게被捧한事도無할뿐아니라入院後釜山往來한事도全無한것은各人士가共知하는바이오며又撮者의糾紛가丈夫有効함에이러한常失誤하謬한結果本人이若此한處이면[illegible]더라도[illegible]報者[illegible]에對[illegible]人도余[illegible]속한해바도되겟다하야[illegible]로[illegible]에依[illegible]承諾하게되야[illegible]受生[illegible]하온바[illegible]에新聞紙上[illegible]에依하야申請하오니訂正하야주심을伏望
大正十五年五月五日崔七星(印)
朝鮮日報社長 貴下

醉後에 自手刺股
일본인선부가

지난십일일 오후세시경에 인천부신뎡 (仁川府新町)음식뎜 락항뎡(樂港亭)에서 선부(船夫)복을입은 젊은사람두명이 술이취하야 신뎡큰길로 통과할지음에 선부한명이 약사촌(四寸)가량이나되는 장도(長刀)를 몰연히쓰내여가지고자긔의오른편넙적다리를부찌롤러서류혈이 림리하야 위급한디경에 이르엇슴으로 동행하든친구는 곳부근소창병원(小倉病院)에입원을시키여 방금응급치료중 이라는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드른즉 그자도도 자긔넙적다리를찔른 그 자는인천부항뎡(港町)조선우선회사(朝鮮郵船會社)동영환(東瀛丸)의화부로잇는중산도승(中山島勝)(三三)으로동료송강호웅(松岡虎熊)(三四)과 전긔 락항뎡(樂港亭)에서술이 며취하야정신에 착란(錯亂)이되야 집으로 도라가든중도에서 그와가티 된것이라더라(인천)

生活難으로飮毒
다행히생명은구해

간동(諫洞)오십 일번디 로미수(盧美秀)(十八)는 십일일 오후한시반경에자긔집에서장(醬)에양잿물을 타먹고 신음하는것을토문경찰부의(土門警察部醫)가즉시현장에달려가서응급치료를한결과 생명에는 아모관계가업다는데전긔 로미수는 구차한살림을유지하기위하야시내모처인쇄소의제본을 마타한달에 십오원가량의 수입으로 근근히호구하여가든바 사월달에는 전긔인쇄소에서 지불할공전을 주지아니함으로 생활이곤난하야 십일일 오전에는 허는수업시 제본하여둔것을 부근미전에맛기고 쌀을 어더오랴고 하엿는데 이도인하야 로미수의처 리완정(李完貞)과싸운후 극도로몰리는 생활난에 비관하고 그와가티음독자살하랴고한것이라더라

휘파람

▲데삼회전조선공직자대회석상에서는조선현상에적응한자치제(自治制)실시에관한건이라는것이상뎡되얏다가 ▲시됴(時潮)의진뎐은토의할필요가업다는것이만장일치로가결되얏다고한다 ▲금년 봄에는자치운동자들의 운동이 어떠한방식으로든지 머리를 들것가터 권하더니 ▲머리커녕은 꼬리도 볼수업더니 공직자들까지 그문뎨는 토의도하기를실혀하는 모양이도다 ▲본래 꿈이라는것은 장자는사람이 아니면 꿀수업는 법이지

服用實驗談募集
懸賞

實驗談募集規定

左의各項을明瞭하게記述하야주십시오

一、服用하시게된動機
무슨病으로因하야服用하시게되엇다든가無論누구의게勸告를밧엇다든지仔細히記錄하야주십시오。

二、服用하는目的
健康增進을目的하시고服用하셧다든가하는略。

三、服用으로得하신効果
服用前과服用後와에病勢와健康上에如何한効果가낫다든것。

四、服用上의感想
理研『뷔타민A』에對하야如何한것이感想되엿다든지무슨服案이게시면記錄하야주십시오。

五、▼注意原稿에는住所氏名을明白히記錄하실事(發表에匿名을希望하시는분은其旨를附記하실事)
이廣告를보신新聞名

賞品金壹千五百五拾圓也
壹等 金百圓也 (正金) 二人
貳等 金五拾圓也 (同) 三人
參等 金貳拾圓也 (〃) 廿人
四等 金五圓也 (理研뷔타민A로) 百人
五等 金貳圓也 (同) 百五十人

◆投稿締切 大正十五年六月十五日
◆送附場所 東京市日本橋區瀨戶物町 玉置合名會社懸賞係
◆審査方法 斯學專門學者 審査決定 함
◆發表 大正十五年八月中

理研ヴィタミンA
비타민에이
學名씨오스테린

理化學研究所에서世界的業績의하나로理研『뷔타민A』가創製된以來玆에五週年、學界로부터는激賞의榮譽로써獎勵되엿스며各國政府로부터는專賣特許의特典을授하야、이제歐米諸國의醫科大學又는食料品會社等으로부터도紹介註文에接하는等理研뷔타민A는人類最高의榮養素로서이에서確實하야主張되엿습니다。此의發賣元인本社는向者에一般服用者로부터의實驗談을募集하야理研『뷔타민A』의實際的效果를알게되야多大한利益을엇든바가잇셧슴니다、今回는마침發賣五週年이라、더욱多大한體驗談을募集하게되엿슴니다。服用者僉位！아모조록左記의條件에依하야힘써實驗談의投稿해주심을伏望합니다。

理研뷔타민
發賣元 玉置合名會社